

을사년을 여는 최고의 한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여는 첫 잔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백 담백 정상에 선 와인들이다. 최고라고 해서 비싸지 않을까 하는 부담은 접어두자. 쟁여두고 마셔도 될 만한 벨류와인이나 가성비 '갑'인 와인들도 있으니 말이다.

먼저 와인스펙테이터(WS)가 꼽은 세계 톱 10 와인이다.

1위는 칠레 와인이 차지했다. '비나 돈 멜초,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이다. 칠레 와인이 1위에 오른 것이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돈 멜초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 중에서도 컬트와인의 시초로 불린다. 특히



와인스펙테이터가 꼽은 톱 10 와인.

2021년은 돈 멜초로는 세기의 빈티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2021 빈티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와인으로는 보리우 빈야드의 '조르주 드 라푸르 프라이빗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 2021' (2위)과 '파우스트,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2021' (4위), '침니락, 스택스립 카베르네 소비뇽 2021' (5위), '드루앵 오리건, 로즈락 에올라 힐즈 피노누아 2022' (6위),

'윌리엄 셀럼, 러시아 리버벨리 이스트 사이드 로드 네이비스 피노누아 2022' (8위), '라미, 러시아 리버벨리 샤르도네 2022' (10위) 등이 꼽혔다.

이탈리아 와인은 안티노리의 '티나 델로 2021' (3위)과 '지디 바이라, 바롤로 알베 2020' (9위)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인 평론가 제임스스쿨링(JS)이 내놓은 톱 10 와인에서는 '베르타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15'가 1위를 차지했다. 100점 만점 기

준에서 100점을 받았다.

JS는 "시간과 장소의 위대함을 구현하는 고전적인 와인"이라며 "로마 제국 당시부터 포도를 재배했던 이탈리아 북동부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와인의 균형과 세련미는 숨막히게 뛰어나 오늘날 신고전주의 와인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JS만의 리슬링 사랑도 여전했다.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으로는 독일의 '문슬러 리슬링 라인가우 홀레 GG

2023' (2위)와 '돈호프 리슬링 나헤 헤르만스홀레 GG 2023' (5위), 오스트리아의 'FX 피흘러 리슬링 와차우 리드 켈러버그 2023' (3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와인 인투지애스트는 미국 스파클링 와인인 '로코 2013 RMS 브뤼 DD'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인 '콜도르치아 포지오 알 벤토 산지오베제 2016'을 각각 1, 2위 와인으로 선정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승리 사이클'

연말 루틴 중 하나인 다이어리 구매를 위해 지난달 31일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았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여파로 독서 인구가 늘어서 집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며 서가를 지나쳐 문구류 판매 코너인 핫트랙스로 향했다.

놀랍게도 이날 교보문고에는 필자처럼 책이 아닌 다이어리를 사러 온 방문객들이 많았다. 책 구경은 여유로운 반면, 플래너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겨우 펼쳐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왜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 구매하는 다이어리에 반듯한 글씨로 신년 계획을 적어 넣는 걸까.

회사 업무나 학습, 취미 등 개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3개월 내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 책 '100일을 디자인하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저자는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크든 작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삶의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목표 달성 의식이 큰 사람일수록 연 수입이 많았다. 또 목표를 세우고 80% 이상 성취한 그룹은 자기 만족도와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를 이뤄낸 이들 중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거나 연 수입,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은



100일을 디자인 하라
나카타 히데토모 지음/이지현 옮김/유엑스리뷰

이유는 뭘까.

저자는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은 자기 긍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이는 더 높은 목표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건 단순히 눈앞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훗날 당신의 미래에 행복을 선사해 줄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책에는 독자들이 석 달 만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가지 꿀팁들이 담겼다. 저자는 시간을 역산해 계획을 세우고, 도움닫기 기간에 기본기를 다지는 수행을 거쳐 골든타임 때 최대 효율을 유지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00일마다 목표 달성을 꾸준히 이루는 '승리 사이클'을 구축하면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180쪽, 1만8000원 / 김현정 기자 hjk1@

슈퍼 강소기업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은 혹독하다. 한국엔 772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매일 3개의 회사가 폐업한다.

암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20년 넘게 성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있다. 평균 매출 651억원, 평균 업력 22년이라는 기록을 가진 20개 '슈퍼 강소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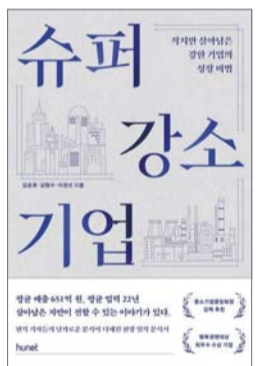
책은 3명의 베테랑 경제 기사가 전국을

누비며 발굴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룬다.

"몸집보다 수익,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스스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전략" 등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CEO들의 생존 비기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340쪽, 2만2000원

김승호, 김형수, 이정선 지음/휴넷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

'이승만 광명, 박정희 피살,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이명박 징역 17년, 박근혜 탄핵과 징역 20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책은 대한민국 우파 세력이 왜 성공한 대통령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지를 파헤친다.

저자는 해방 이후 우익의 계보를 씨줄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날줄로 현대사를 재구성해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

는 우익이 최종적으로 뉴라이트에 다다른 모습과 실체를 까발려 그들이 왜 매국 우파인지 밝힌다.

우리나라에서 우파의 가면을 쓴 집단은 보수가 최우선으로 꼽는 전통적 가치,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쫓는 대신 사대주의에 기대 기득권 유지와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됐다고 책은 지적한다.

160쪽, 1만6800원

이병권 지음/황소검음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

인류는 규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은 세계를 만든다. 교통 표지판부터 스포츠 규정, 요리 레시피, 사용 설명서, 맞춤법,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365일, 24시간 규칙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 재난, 전쟁, 테러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원칙을 찾으며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쓴다.

저자는 인간이 어떻게 규칙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것인지, 규칙이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재단하고 통제하는지, 규칙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측정 및 계산의 도구 '알고리즘', 따라야 할 모델 '패러다임', 사회를 통제하는 '법' 총 세 가지로 나눠 규칙을 분석하며 그 본질을 밝히는 책.

464쪽, 2만3000원

로레인 대스턴 지음/황정하, 홍성욱 옮김/까치(까치글방)



메트로 한줄뉴스

- ▲ 현재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 신속 심리 착수"...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
- ▲ "빨간불"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승용차 2대에 치여 사망

- ▲ '살인사건, 단순 변사?'...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관 송치
- ▲ 새해 첫날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사업 3306억 집행...역대 최대 규모



- ▲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
- ▲ 경찰, 대통령 관저 앞 드러누운 지지자들 강제 해산

/사진 뉴스스